

4. 지식에 따른 실시에서는 소아마비 82.7%, D. P. T 82.4%, 홍역 67.8%, B. C. G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접종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습득경로를 살펴보면, 의사나 간호원 및 보건요원을 통해서가 45%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친구나 동리의 주부를 통해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총합하여 볼때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목적 하는 질병과 관련하여 볼때 지식이 적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어머니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적기적절한 시기에 철저히 이행 되지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잘 알고있는 경우는 그에따른 실시율이 높으므로 효율적인 면역화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통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이 요망됨과 동시에 간호사는 보건교육의 중요 담당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어머니의 역할을 준비 지도하는 시기부터 양육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적합한 건강관리를 지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함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된다.

일부 농촌부인의 수유 산후 무월경 및 피임실시에 관한 연구

경남간호전문대학 논문집, Vo1. 9, pp. 145~157, 1982.

강 영 실

본 연구는 모성보건에 기초를 둔 가임기 모성보건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1982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 동안, 경남 경남 합천군에 거주하는 14-49세의 유배우 기혼부인 174명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설문지에 의거하여 수유, 산후무월경 및 피임실시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대상부인의 연령별 분포는 40-44세군이 29.9% 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이 38.1세였다.

2) 교육정도는 국민학교 학력이하가 84.5% 로 낮은 교육수준이었다.

3) 초혼연령은 19세이하가 53.4% 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이 19.7% 세였다.

4) 결혼기간은 대상부인의 50.6% 가 20년 이상으로 평균결혼기간이 16.45년이였다.

5) 첫 분만시 연령은 20-24세군이 66.7% 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22.1세였다.

6) 임신횟수는 5회가 23.65로 가장 많았고 평균임신횟수는 5.1회였다.

7) 출생순위는 네번째 출생이 26.4% 로 가장 많았고 평균 4.2% 위였다.

8) 분만장소는 91.1%가 가정분만이었고 의료인에 의한 분만개조가 대상부인 174명 중 20명인 11.4%, 비의료인에 의한 분만개조가 88.6%였다.

2. 수유상태

수유를 경험한 부인은 대상부인의 98.3%로 절대다수가 모유에 의존하고 있었고 수유상태는 수유경험부인 중 149명인 85.6%가 면접일 이전에 이유하였고 계속 수유중인 부인이 12.75였다.

3. 평균수유기간 및 산후 무월경기간

면접일 이전에 이유한 부인의 평균수유기간은 18.0개월이고 계속 수유중인 부인에서는 15.1개월로 전체평균수유기간은 17.3월이었다. 월경이 회복된 부인의 산후무월경기간은 수유를 전혀 하지 않은 부인에서는 5.2개월, 면접일 이전에 이유한 부인은 12.9개월, 수유중인 부인은 9.5개월이었다.

4. 월별이유율, 산후월경회복율 및 피임실시율

대상부인의 월별이유율은 0~7 내외에서, 월경회복율은 1~10% 폭으로 불규칙한 변화를 보였고 월경회복율이 이유율보다 높아 수유중에도 월경을 회복하는 부인이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유율과 월경회복율이 12개월, 24개월에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대상부인의 기억의 편중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월별피임실시율은 3%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5. 관찰기간별 누적이유율, 월경회복율 및 피임실시율

수유 경험 부인의 관찰기간별 누적이유율은 6개월 말에 10.5%, 12개월말에 44.2%로 1년까지 55이상이 수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기간별 누적월경회복율은 6개월말까지 31.1%, 12개월말까지 62.0%로 이유율보다 높았다. 관찰기간별 누적피임실시율은 6개월말에 14.6%, 12개월말에 28.5%로 월경회복율의 약 반 정도였다.

6. 대상부인의 특성별 산후월경기간

수유후 이유한 부인의 평균무월경기간은 출생회수가 많을수록(첫번째: 5.0개월, 여섯번째: 15.6개월)연장되었고 연령과 결혼기간별 산후무월경기간은 각 군에서 다소의 기복을 보였다. 수유후 이유한 부인의 평균무월경기간은 12.9개월이었다.*

7. 월경회복과 피임실시 상황

월경이 회복된 부인 144명 중 71명인 49%가 피임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월경회복 전에 피임을 실시한 부인은 15%, 나머지 85%가 월경회복 후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임을 실시하고 있는 부인들의 피임방법은 복강경 불임술이 46.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루프로 31.0%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모유의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동안 수유하고 있어 모성건강은 물론 영유아의 성장에도 문제가 된다고 사료된다.

수유가 무월경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월회복율보다 훨씬 높고 반면에 피임실시율은 낮아 수유기간중의 임신의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조기피임의 필요성과 모성보건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